

첨단기술에서 일상 속 도구로… ‘리터러시’ 역량 중요해져

〈문해력〉

AI 대중화

대화·검색·제작 등 활용성 높아져
환각 등 불안정… 사용자 해석 관건
“韓, 리터러시 정책·교육 병행돼야”

인공지능(AI)이 우리의 일상을 바꾸며 AI 리터러시(AI Literacy, 문해력)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2022년 11월 오픈AI가 챗GPT를 공개한 후 전세계는 한순간에 기술 박행을 경험했다. 이전까지는 전문가만이 접근할 수 있던 AI 기술이 이제는 누구나 채팅하듯 사용할 수 있게 되면서, AI는 전문가의 전유물에서 대중의 일상 도구로 자리잡았다. 산업계도 빠른 AI 전환이 생존책이라는 인식이 널리 퍼지면서 AI 도입에 서둘렀다.

이처럼 AI의 발전과 대중화는 빨라지고 있지만 AI 리터러시에 대한 사회적 논의는 더디다. 초중고에서의 AI 리터러시와 관련한 내용이 올해 도입됐지만 성인을 대상으로 한 AI 리터러시 관련 정책 등은 여전히 일천하다.

25일 <메트로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해보면 이달 MIT 컴퓨터과학 및 인공지능연구소(CSAIL)이 온라인 아카이브를 통해 공개한 논문에 따르면 주요 AI모델들 모두 답변에 일관성이 없고 중심이 되는 가치관과 선호 또한 존재하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관습적, 도덕적 문제들에 대해 인간의 개입이 쉽지 않다는 것.

연구진은 “이번 연구를 통해 깨달은 것은 AI 모델이 안정적이고 일관된 신념과 선호를 가진 체계가 아니라는 것”이라며 “대신, AI는 되는데로 말을 막던지는 모방자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AI가 적절하지 않거나 틀린 답변을 생성할 수 있는 상황에서 AI 리터러시는 더욱 중요해졌다.

AI 리터러시란 단순히 기술을 사용하는 능력에 그치지 않는다. AI가 어떤 원리로 작동하는지, 어떤 데이터에 기반해 결정을 내리는지, 그 한계와 위험은 무엇인지를 이해하는 능력까지 포괄한다.

‘개인화’나 ‘이용자 친화성’을 내세워 편향된 정보만을 제공하는 필터버블(Filter Bubble), 대화형 AI 모델이 실존하지 않는 사실이나 맥락을 벗어난 답변을 만들어내는 환각(할루시네이션) 현상 등, AI가 작동하는 거의 모든 영역에서 필수다.



Chat GPT에 의해 생성된 AI 기술 활용 이미지

중요성과 달리 현실은 다소 엇박자를 타고 있다. AI 활용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지만 허위정보를 식별할 수 있는 능력은 떨어진다.

픽플리가 10대 이상 소비자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89.7%가 “AI 기술이나 서비스를 이용해봤다”고 응답했다. AI 경험자의 79.2%는 검색 및 정보 탐색 목적으로 AI를 활용하고 있었으며, 생성형 AI의 경우 응답자의 84.6%가 “사용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특히 생성형 AI 서비스 중에서는 챗GPT가 93.9%로 압도적인 사용 경험을 보였다.

사적 영역에서의 AI 활용도 두드러진다. ‘페르소나 AI’로 불리는 AI 친구·연인이 주목을 받고 있다. 감성형 AI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타(Zeta)’를 개발한 기업 스캐터랩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제타의 월간 활성 이용자 수(MAU)는 약 70만명에 달하며 이용자들이 AI와 주고받은 대화 건수는 한 달간 14억9000만건을 기록했다. 사용자들의 평균 주간 이용 시간이 9.5시간이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AI 활용은 늘었지만, 신뢰나 판단 능력은 여전히 불안정하다. AXA가 발표한 ‘AXA 미래 위험 보고서’에 따르면 전문가 3000명과 일반 대중 2만명의 인식을 조사한 결과 전문가는 80%, 대중은 78% 스스로 AI 관련 허위정보를 식별할 수 있다고 응답했다. 정작 타인에 대한 정보 분별력에 대해서는 전문가는 25%, 대중은 40%로 나타났다.

연구에서는 AI에 친숙할수록 AI 리터러시가 떨어지는 현상도 나왔다. 논문 ‘생성형 AI에 대한 감성요인이 AI 리터러시와 프라이버시에 미치는 영향’에 따르면 AI 리터러시가 가장

높게 나타난 집단은 AI에 대한 불안감이 가장 높고, 활용이 많지 않은 40대였다.

AI 친숙성이 높은 집단 역시 AI 리터러시가 유의미하게 높았다. 그러나 불안감과 이용빈도가 낮은 집단의 A

I 리터러시가 더 높게 나타난 만큼, AI에 능숙하고 친밀하다고 해서 AI 리터러시가 높은 것은 아니란 결론이 나온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AI의 활용이 늘어났지만 정작 AI 리터러시는 떨어지는 현상은 생성형 AI의 갑작스러운 출현과 관계있다. 생성형 AI는 예상치 못한 순간 나타나면서 자연스럽게 대중이 기술을 이해할 기회가 없었다. 이는 곧 AI 기술에 대한 무조건적인 찬양 또는 거부감으로 나타났는데, 거기에 더해 개개인이 직접 AI 교육을 찾아 사설기관에서 들어야 한다는 점 또한 AI 리터러시의 하향 평준화에 역할을 하고 있다.

앞선 AI 리터러시 관련 연구를 진행한 연세대학교 바른ICT연구소 김현정 연구원은 “AI 기술의 잠재적 위험을 인식하는 사람들이 더 많은 정보를 습득하려는 동기부여가 강하다는 것은 중요한 시사점”이라며 “AI 리터러시 교육이

단순히 기술적 지식을 전달하는 것에서 나아가, 프라이버시 보호 등과 관련된 실질적인 전략을 포함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동환 포티투마루 대표는 지난 25일 ‘인공지능민간특별위원회’ 발대식에서 민간기업으로서 느낀 정책 발전 필요성을 말하며 AI 리터러시의 중요성을 말하기도 했다.

김 대표는 “우리나라는 독자적인 IT 생태계를 가진 몇 안 되는 나라지만 국민의 AI 이해 수준은 AI 시대에 오히려 낮아졌다”며 “지브리 생성처럼 잠깐의 유행은 있었지만, 지속적인 활용과 이해로 이어지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모두를 위한 AI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기술보다 리터러시가 우선”이라며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리터러시 정책과 교육 체계가 병행돼야 진정한 AI 강국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서현 기자 seoh@metroseoul.co.kr

“기술 접근성 높아지며 악용 가능성도 커져”

》1면 ‘좋아할 것만 보여준다’서 계속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딥페이크(Deepfake) 성범죄에서 10대 피의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73.6%에 달했다.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윤정숙 실장은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는 기술 접근성과 함께 범죄 접근성도 높아졌다”고 지적했다. 특정 키워드를 통해 불건전 콘텐츠로 이어지는 경로가 손쉽게 열려 있다는 것이다.

의정부성모병원 이해국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고령층은 정보 신뢰 판단 능력이 떨어지고, 외로움과 고립감을 해소하려다 디지털 미디어 중독에 빠진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IT 업계 관계자 B씨는 “사실상 AI 추천 알고리즘에서 벗어날 방법은 인터넷을 하지 않는 것뿐”이라며 “이런 상황 속에서 가장 시급한 과제는 AI 리터러시 확산과 정부 차원의 대응책 마련”이라고 강조했다.

/김서현 기자

우리의 행복이 일상이 되도록

더 깨끗한 내일을 위해,
함께 나아갈 우리를 위해,
더 투명한 세상을 위해,
한국중부발전이 이끌어 나가는 ESG 경영.

깨끗한 에너지로 국민이 신뢰하는
지속가능한 발전회사가 되겠습니다.

THINK TOMORROW,
ESG LEADER!

 **KOMIPO**
한국중부발전



수소 밸류체인 구축 확대
(수전해 기반 수소 생산기지,
블루수소 생산 플랜트 구축)



미래를 위한 끊임없는 도전,
발전사 최다 양수발전 사업자 선정
(구례, 봉화)



해외 운영사업장
발전5사 중 1위
(11개소)



아세안국가 전력시장 선점을 위한
TEAM KOMIPO 해외동반진출
(9년 연속 동반성장평가 최고등급 달성)